

국외출장복명서

기 간: 2022. 11. 26. ~ 2022. 12. 2.

출장지: 프랑스

출장자 : 신서경 부연구위원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 프랑스 파리

2. 출장기간 : 2022. 11. 26.(토) ~ 12. 2.(금) (6박 8일)

3. 출 장 자 : 총 1명

소속	직위	성명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신서경

4. 출장 목적

☐ 2022년 제47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및 지역 지표·도시 작업반, 다층적 거버넌스 작업반 회의** 참석

- 회원국별 지역개발정책 관련 발제 및 토론을 참관하여 각국의 관련 정책 동향 파악
-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등 도시 적응력·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논의 등에 관한 회원국별 경험과 정책사례를 공유, 향후 국내 지역정책방향 수립 시 활용

* 작업반 회의 주요 사항과 OECD 현안을 종합 논의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산하 지역 지표(CFE), 도시(urban)·비도시(rural),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및 공공투자(Public Investment) 작업반별로 각각 지표발굴 및 분석, 지역경쟁력 제고, 정책추진 거버넌스 증진 등을 위한 프로젝트와 사례 공유 및 논의

☐ 한국대표단 구성원

- 국토교통부 오공명 과장(대표단 단장) 외 9인
- 국토연구원 신서경

* 별첨. 2022년 제47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대표단 명단 참조

별첨.

2022년 제47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대표단 명단

성명	직책 및 소속	업무
오공명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수석대표 • 회의 총괄
박기범	건축문화경관과장	회의 참석 및 대응 • 비도시정책 작업반
이진우	서기관 (지역정책과)	회의 참석 및 대응 • 비도시정책 작업반 • 다층적거버넌스 작업반
이승원	사무관 (녹색건축과)	회의 참석 및 대응 • 2022 정책 세미나
김재준	주무관 (도시경제과)	회의 참석 및 대응 • 도시정책 작업반
오요셉	주무관 (국토정책과)	회의 참석 및 대응 • 지역지표 작업반
임현아	행정사무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회의 참석 및 대응 •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박형빈	공업주사보 (국제협력통상담당관)	회의실무 • 수석대표 의견 수행 • 대표단 일정 관리 • 회의자료 준비 • 회의장 확인, 사진촬영 • 회의 참석 및 대응
문성윤	자문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영어 통번역 • 회의 통번역
신서경	연구원 (국토연구원)	회의 참석 및 자문

II. 출장 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안전 및 논의사항)	비고
11월 26일(토)	인천	파리	(인천) 12시 15분 출발 (파리) 18시 30분 도착	
11월 27일(일)	숙소		업무 준비 및 회의	
11월 28일(월)	OECD 본부 회의장 (CC2, CC13)		☐ 제43차 지역지표(Territorial Indicators) 작업반 회의 ○ 오프닝 세션 ○ 지역 불평등 해소 - 「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22」 발표 - 교육과 건강 불평등 - 소득 불평등 ○ 지역 경제 동향 - 지역과 글로벌 경제 - 지역과 관광 - 지역과 기업 활동 ○ 지역개발에서 모든 규모의 도시와 마을의 역할 : 서비스 제공의 역할 ○ 지역 수준에서 가격 측정 ○ 실험적인 도시 통계 ○ 비도시 지역의 기능과 서비스 지역 그리기 ○ 비도시 지역의 사회혁신 참여역량 측정 ○ 기타사항 업데이트 및 향후 일정	
11월 29일(화)	OECD 본부 회의장		☐ 제32차 도시정책(Urban Policy) 작업반 회의 ○ 오프닝 세션 ○ 도시의 생활비, 에너지 및 주택가격 상승 문제 대응 ○ 우크라이나 도시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강화 ○ 국가·도시 정책을 통한 도시 회복력 강화 ○ 기후변화의 선두에 있는 도시 - 각 도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행동 및 체계적인 기후 회복력 강화 - 도시 건물과 가정의 온실가스감축 촉진 - 도시의 청정경제 잠재력 지원 ○ 도시-도시 파트너십과 탈중심화된 개발협력을 통한 SDGs 추진 ○ 기타사항 업데이트 및 향후 일정	

11월 30일(수)	OECD 본부 회의장		☐ 제5차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와 공공투자(Public Investment) 작업반 회의 ○ 오프닝 세션 ○ 지역 차원(subnational)의 탈탄소 이행을 위한 자원 마련 ○ 기후 위기 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 지역과 도시의 포용적이고 양질의 기반시설 투자 ○ 혁신정책의 다층적 거버넌스 ○ 지역 재정 데이터의 미래 ○ 도시 간 협력 : OECD국을 위한 기회와 도전 (핀란드와 리투아니아 사례 중심) ○ 향후 일정 및 계획	
12월 1일(목)	OECD 본부 회의장		☐ 제47차 지역개발정책(Regional Development Policy) 위원회 1차 회의 ○ 오프닝 세션 ○ 팬데믹 회복 정책 이행과 더불어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수행 ○ 지역기반 기후 행동 :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정책 ○ 「The OECD Regional Outlook 2023」 관련 토론 ○ 각 작업반 활동 결과 보고 ○ RDPC Communication and Impact (closed-door session) ○ 국제 관계 ○ 오프닝 세션	
12월 2일(금)	OECD 본부 회의장		☐ 제47차 지역개발정책(Regional Development Policy) 위원회 2차 회의 ○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OECD 권고 초안 검토 ○ 우크라이나 재건 : 지역과 도시 거버넌스 강화 ○ RDPC 네트워크 :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를 위한 OECD Champion Mayors · OECD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WGI)의 최근 프로젝트 추진 상황 ○ 차기 회의 일정 및 폐회	
	파리		(파리) 21시 00분 출발	
12월 3일(토)		인천	(인천) 17시 05분 도착	

※ 첨부. 관련 증빙자료(항공권 발급, 숙박 영수증 등) 참조

첨부.

관련 증빙자료

● 항공권 발급

현대아산주식회사

[Redacted]

Provided by **TOPAS**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e-Ticket Itinerary & Receipt

항공권 발행일: 2022년 11월 22일

승객성명 Passenger Name	항공권번호 Ticket Number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SHIN/JENIFFER S MS	[Redacted]	[Redacted]

1

서울 ICN
Incheon international
Terminal No: 2

26NOV22(토)12:15 (Local Time)

파리 CDG
Charles de gaulle
Terminal No: 2E

26NOV22(토)18:30 (Local Time)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에서 운항합니다.

예약등급 Class: M(일반석)
운임 Fare Basis: MLW0ZRMK
수하물 Baggage: 1PC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 26NOV23
기종 Aircraft Type: BOEING 777-300ER

비행시간 Flight Time: 14시간 15분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5626
좌석번호 Seat Number: 41H

KE0901
KOREAN AIR

2

파리 CDG
Charles de gaulle
Terminal No: 2E

02DEC22(금)21:00 (Local Time)

서울 ICN
Incheon international
Terminal No: 2

03DEC22(토)17:05 (Local Time)

예약등급 Class: Y(일반석)
운임 Fare Basis: YNW0ZRMK
수하물 Baggage: 1PC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 26NOV23
기종 Aircraft Type: BOEING 777-300ER

비행시간 Flight Time: 12시간 5분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5626
좌석번호 Seat Number: 44A

KE0902
KOREAN AIR

● 예약등급은 항공사 FLIGHT 정보에 따라 표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할인 또는 무임 항공권의 경우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이 상이하거나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스케줄, 기종 및 좌석등급(서비스클래스)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예고없이 항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교체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하신 좌석이 변경될 수 있으니 탑승수속 시 기종 및 좌석번호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는 항공사나 공항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운임정보 Ticket/Fare Information

연결항공권 Conj.Ticket No.	-
운임산출내역 Fare Calculation	SEL KE PAR771.13KE SEL1181.23NUC1952.36END ROE1426.475762
산출운임 Fare Amount	KRW 2785000(Paid Amount KRW 2785000)
지불화폐 Equiv.Fare Paid	-
세금/항공사 부과 금액 Taxes/Carrier-imposed Fees	Paid Amount KRW 531300
세금 Taxes	KRW 28000BP 11800FR 16200FR 6300IZ 4200O4 41800QX * 한국 출발 세금(BP)에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인천/김포공항 17,000원, 기타 12,000원), 출국납부금 10,000원, 국제철벌비치기금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	KRW 423000YR
부가수수료 Service Fees	-
총산출금액 Total Amount	KRW 3316300 (Total Paid Amount KRW 3316300)
지불수단 Form of Payment	CCVI XXXXXXXXXXXX6118 / XXXX/00
발행일/발행처 e-Ticket Issue Date/Place	22NOV2022 / 17326120 / SELK1320Y * 지불금액은 (Total Paid Amount)에 표기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Notice

● 본 e-티켓 확인증과 함께 제공된 법적 고지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티켓 확인증은 탑승수속시, 입출국/세관 통과시 제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 여행 기간 동안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티켓 확인증의 이름과 여권상의 이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본 e-티켓 확인증은 e-티켓의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면에 불과하고 소지인에게 당해 운송 관련 어떠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e-티켓 확인증을 임의로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한항공 또는 정당한 e-티켓 소지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대부분의 공항에서 탑승수속 마감시간은 해당 항공편 출발 1시간 전으로 되어있으나, 해당 출발 예정시간 최소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숙박 영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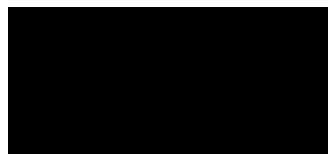
Paris, le 02/12/2022

Madame, Jeniffer s SHIN

Page: 1
Note n°22005851/01
VEGA 5.25
Arrivée : 26/11/2022
Départ : 02/12/2022
Réf. :
Chambre : 25
Nb Pers : 1

PAYS ASIE

Date	Qté	Prestations	PU HT	TVA	PU TTC	TOTAL TTC
26/11/2022	1	CHAMBRE DECOUVERTE	180,91	1	199,00	199,00 €
	1	TAXE DE SEJOUR	1,88	3	1,88	1,88 €
27/11/2022	1	CHAMBRE DECOUVERTE	180,91	1	199,00	199,00 €
	1	TAXE DE SEJOUR	1,88	3	1,88	1,88 €
28/11/2022	1	CHAMBRE DECOUVERTE	244,55	1	269,00	269,00 €
	1	TAXE DE SEJOUR	1,88	3	1,88	1,88 €
29/11/2022	1	CHAMBRE DECOUVERTE	208,18	1	229,00	229,00 €
	1	TAXE DE SEJOUR	1,88	3	1,88	1,88 €
30/11/2022	1	CHAMBRE DECOUVERTE	244,55	1	269,00	269,00 €
	1	TAXE DE SEJOUR	1,88	3	1,88	1,88 €
01/12/2022	1	CHAMBRE DECOUVERTE	226,36	1	249,00	249,00 €
	1	TAXE DE SEJOUR	1,88	3	1,88	1,88 €



Code	Taux (%)	Tva	Ht
1	10,00	128,55	1285,45
3	0,00	0,00	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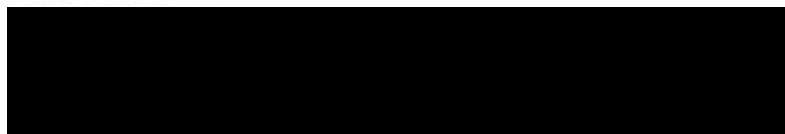
Total Prestations : 1425,28 €

Total Tva : 128,55 €

NET A PAYER : 1425,28 €

« Conformément à la loi N°2008-776 du 4 août 2008 et à l'article L441-6 du Code du Commerce, nous vous informons que le délai de règlement des sommes dues est fixé au jour même de l'exécution de la prestation demandée. En cas de non-respect de ce délai de règlement, des pénalités de retard seront exigibles le jour suivant la date de règlement figurant sur la présente facture dont le taux d'intérêt sera égal à celui appliqué par la Banque centrale européenne à son opération de refinancement la plus récente majorité de 10 points de pourcentage. Les pénalités de retard sont exigibles sans qu'un rappel Est puni d'une amende de 15.000 euros le fait de ne pas respecter les délais de paiement mentionnés aux présentes conditions de règlement tel que prévu à l'article L441-6 du Code du Commerce »

Hôtel Pastel Paris* - 79 rue Lauriston - 75116 Paris**



III. 출장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 회의 참관(개최) 순으로 작성

- ☐ 제43차 지역지표(Territorial Indicators) 작업반 회의
 - OECD 회원국이 활용 가능한 지역 지표 및 분석방법 발굴 논의
- ☐ 제32차 도시정책(Urban Policy) 작업반 회의
 - 에너지와 생활물가 위기(인플레이션) 등 도시 정책의 해결과제와 방법론 공유
 - 우크라이나 도시 재건 지원 현황, 청색 경제(blue economy) 발전 논의
- ☐ 제5차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와 공공투자(Public Investment) 작업반 회의
 -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지역-도시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전략과 사례 공유
- ☐ 제47차 지역개발정책(Regional Development Policy) 위원회 1차 회의
 - OECD 권고 보고서 초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 수렴
- ☐ 제47차 지역개발정책(Regional Development Policy) 위원회 2차 회의
 - ○ 우크라이나 도시 재건을 위한 회원국별 지원 현황 공유 및 향후 대응 논의

2. 참관 및 평가

* 붙임. 제47차 OECD 지역정책개발위원회(RDPC) 회의록 참조

- ☐ 지역지표 작업반의 경우, 회원국 전반이 활용 가능한 지표와 분석방법론 발굴에 집중
 - 회원국별 다양한 지표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석 개념과 대상 발굴에 협력 중
 - 한국은 통계청에서 도시 관련 통계지표를 활용한 지리정보화 결과 공유
- ☐ 다층적 거버넌스와 공공투자 작업반 회의 지속, 청색 경제(blue economy)의 논의 시작
 - 신생 작업반인 다층적 거버넌스와 공공투자 작업은 5차 회의를 지속
 - 도시정책작업반과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논의에서 청색 경제(blue economy)의 개념 정립과 정책화 논의를 진행
- ☐ 유럽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OECD의 특성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업반 및 위원회 회의 주제에 큰 영향

- OECD 사무총장이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둘째날 기조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의 중요성 강조, 우크라이나 지도층 등의 온라인 회의 참여
- 회원국 도시와 우크라이나 도시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재건 정책 논의 중이며 유럽 도시와 미국 도시의 지원 활발
-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구체화 필요성 강조, 인플레이션 지속에 의한 주거 안정 등 생활물가 관리 관련 논의 집중
- 각국의 에너지 정책 추진현황과 특이사항을 비롯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공유
- 에너지 정책을 타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총체적 계획 및 정책추진을 강조

3. OECD 작업반 및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결과

제43차 지역지표(Territorial Indicators) 작업반 회의 및 비도시 정책(Rural Policy) 작업반 공동 세션

1. 회의명

- 제43차 지역지표 작업반 회의 및 비도시 정책(Rural Policy) 작업반 공동 세션

2.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28일(월), 09:30 ~ 17:30 (파리시간); OECD CC2 회의실

3. 참석자

- OECD 지역지표 작업반 일원, 회원국별 대표단 및 사무국 일원

4. 논의 안건

- (1) 지역 불평등 해소
 - 「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22」 발표
 - 교육과 건강 불평등, 소득 불평등
- (2) 지역 경제 동향
 - 지역과 글로벌경제, 지역과 관광, 지역과 기업 활동
- (3) 지역개발에서 모든 규모의 도시와 마을의 역할 : 서비스 제공의 역할
- (4) 지역 수준에서 가격 측정
- (5) 실험적인 도시 통계
- (6) [비도시 정책 작업반 공동 세션] 비도시 지역의 기능과 서비스 지역 그리기
- (7) [비도시 정책 작업반 공동 세션] 비도시 지역의 사회혁신 참여역량 측정

5. 주요 논의내용

- (1) 지역 불평등 해소
 - OECD 지역지표 작업반 발언 개요

- OECD 중소규모 기업 및 기업가 정신 작업반의 상반기 논의 결과 개요 언급
- 비도시지역 작업반 및 청년 관련 지원정책 작업반 결과 공유
- 지역지표 작업반은 회원국 대상 국가 간, 국가 내 지역 간 불균등 지표 분석 중
- OECD 회원국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는 감소 추세이지만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증가
- 대도시권은 젊은 층의 종착지로 나타났으며 이민자 역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려는 경향

- ‘Building Livable Communities’에 관한 분석 결과, 비도시지역의 디지털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며 도시지역의 인프라가 비도시지역 보다 약 40% 빠른 서비스를 제공, 도시지역의 비대면 업무가 가장 빠른 적응력을 확보
- 대도시권과 수도권의 물가 상승이 높아 부담가능성(affordability)이 매우 낮은 경향
- 코로나 기간 동안 도시 외곽의 집값 상승이 나타난 회원국도 존재
- 회원국 대부분이 기후중립 목표에 미달하고 있으며 50개 회원국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전기생산 체계를 지속
-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은 혹서와 열섬현상 해결에 집중하는 추세
- 고등교육 접근성은 비도시지역일수록 열악한 추세, 일자리 및 교육의 기회 모두 대도시권 쏠림 추세

- 지역 지표 작업반의 첫 번째 논의주제는 작업반 담당자의 발표 중심으로 진행, 회원국 의견은 데이터 객관성과 상용화에 대한 의견 중심
- 특히 회원국 간 데이터 구득 여건과 지표 활용 여건이 달라 발표 내용의 결과를 해석하거나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2) 지역 경제 동향

- OECD 지역지표 작업반 발언 개요

- OECD와 회원국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소개
 - 스웨덴의 지역관광 지표 변화, 노르웨이의 ‘Scaling up’ 발표 등
- 방법론과 실제 현장 여건을 더욱 면밀히 연계하는 노력 필요

- 영국 : 영국은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지표에 관심이 있고 지역과 도시정부의 관련 데이터 구득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더 보강되었으면 함
- 유럽연합(EU) : FDI 지표는 유럽연합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다뤄지고 있고 FDI의 지리적 분포 현황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함
- 미국 : 미국도 이와 유사한 지표를 발굴하고 집계하고 있음
- 노르웨이/독일 : 스웨덴의 지역관광 관련 발표는 스키 관광이 주를 이루는 계절 관광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어야 함
- 영국 : 스웨덴 발표에 대해서 원격 근로자의 통근 양상과 구분하여 분석하였는지 질의함
- 독일 : 노르웨이의 ‘Scaling up’ 프로젝트의 ‘Scaler’ 개념 정의에 공감하고 연구의 틀에 매우 공감하고 좋은 연구라고 생각함
- 유럽연합(EU) : ‘Scaler’의 OD 분석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밖에 OECD의 데이터 제공 플랫폼에 대한 안내와 분석 프로젝트 참여 홍보

(3)·(4)·(5) 관련 프로젝트 발표 및 의견수렴

◦ OECD 지역지표 작업반 발언 개요

- 독일의 지역 가격(regional price) 관련 분석 프로젝트 추진현황 소개
- 이탈리아의 분석 프로젝트 소개(뉴욕의 도너츠 현상 언급)
- 한국의 코로나 전후 통계 변화, 도시화 수준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지리공간 정보화 결과 소개(통계청 발표)
- 캐나다의 실시간 100X100 지리정보 데이터 소개
- OECD의 토지이용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 외연적 확산과 토지 이용 변화 보고서 소개
- OECD의 이탈리아 사례 도시 규모(인구)와 약국 등 생활편의 및 교육 시설의 분포 분석 결과 소개(중소규모 도시의 생활편의의 접근성 분석 목적)
- OECD의 호주 사례 인구분포와 학교 등 공공서비스의 분포와 문제점 분석 결과 소개

◦ 각국의 통계 자료 등 유용한 데이터 활용 방법과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6)·(7) [비도시 정책 작업반 공동 세션]

◦ 혁신 정책과 연계한 비도시지역의 OECD 주도 프로젝트 소개와 추진 현황 공유

제32차 도시정책(Urban Policy) 작업반 회의

1. 회의명

- 제32차 도시정책(Urban Policy) 작업반 회의

2.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29일(화), 09:30 ~ 17:30 (파리시간); OECD CC2 회의실

3. 참석자

- OECD 도시정책 작업반 일원, 회원국별 대표단 및 사무국 일원

4. 논의 안건

- (1) 도시의 생활비, 에너지 및 주택가격 상승 문제 대응
- (2) 우크라이나 도시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강화
- (3) 국가·도시 정책을 통한 도시 회복력 강화
- (4) 기후변화의 선두에 있는 도시
 - 각 도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행동 및 체계적인 기후 회복력 강화
 - 도시 건물과 가정의 온실가스감축 촉진
 - 도시의 청정경제 잠재력 지원
- (5) 도시-도시 파트너십과 탈중심화된 개발협력을 통한 SDGs 추진

5. 주요 논의내용

- (1) 도시의 생활비, 에너지 및 주택가격 상승 문제 대응

- OECD 도시정책 작업반 발언 개요

■ OECD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보고서(우크라이나 각 도시 시장 인터뷰 등) 발간 예정(11월 30일 발간)
--

- 영국 :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지원정책 소개 및 향후 계획 언급
- 이스라엘 : 주택제고 및 가격, 밀도 및 세대 규모 등의 개선 정책, 신규 주택공급과 주택계약 등에 대한 정책 설명, 도시재생 관련 기본계획 수립
- 프랑스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지원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나 생활서비스와 물자의 가격 상승에 의한 지방정부의 예산 한계 언급(코로나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여파), 그밖에 2023년 에너지 관련 지원정책 목표 구체화 예정이며 지속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진행 예정

- 미국 : 인플레이션 대응정책(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른 세금 혜택, 기후행동 지원 등을 추진 중, 건물과 주거의 에너지 소비 등 관련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공동주택 공급 확대 검토와 주택 임대시장의 물가 안정에 노력(zoning reform 등)
-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에너지 관련 이슈가 매우 중요, 가구별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러시아에 대응한 가스 공급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 독일 : 단기적으로 에너지 관련 세금 비율을 낮추고 있고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따른 비용 환급을 지원하기 시작,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상회할 경우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내년부터 그 효과를 모니터링 예정, 에너지 소비 목적(유형, 예를 들어 병원의 에너지 소비 등)에 따른 차등적 지원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에너지 지원정책은 비용적 한계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스웨덴 : 가구별 에너지 비용 부담 상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주택시장은 이자율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가격 상승이 지속, 대도시권 주택시장의 이자율 급등이 더욱 심각하며 비도시지역도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중, 한편 재생에너지 공급은 지리적 제약으로 대안적 해법을 모색하는 중임
- 루마니아 :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피난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 피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주택 공급 증대에 집중하고 있음
- 터키 : 터키도 타 회원국과 유사한 여건에 처해 있고 서쪽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피난민의 주택공급 대안 마련이 시급함

(2) 우크라이나 도시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강화

◦ OECD 도시정책 작업반 발언 개요

- 우크라이나 도시 재건을 위한 도시와 도시(City to City, C2C) 간 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플랫폼 소개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기반시설 폭격에 집중하고 일반인을 살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협력 파트너십 플랫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도시의 재건을 지원하고 있음
- 플랫폼은 우크라이나 도시가 프로파일을 작성 및 신청하면 검토 후 지원이 이뤄지는 온라인 공간으로 역할함
-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도시)의 역할이 중요, 피지원 도시와 지원도시 간 매칭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

- 미국 : 국제 개발 협력 지원 기구 등 연방정부의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정책을 제공 중, 초당파적 입안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 : 연방정부의 상무부, 교통국 등이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건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진행, 민간시장의 참여도 논의 중임
 - : 미국 도시는 별도의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고 전쟁 난민을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 버지니아 알링턴 등이 이에 참여하고 있음
 - : 우크라이나의 주택 재건을 위해 주택국(HUD)이 지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지식 교환(knowledge exchange) 프로그램 운영 중임
- 프랑스 : 우크라이나 도시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단기적 지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기술적 지원에 집중하여 우크라이나 도시의 재건을 논의 중임
- 에스토니아 : 우크라이나 난민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난민은 지역 노동시장에 기여 중, 지방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고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교육과 문화 측면의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 독일 : 독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정책은 새로운 정책은 아니며 전쟁 회복에 대한 조언에 초점을 두고 지원 중, EU 회원국을 희망하는 우크라이나의 목표를 고려한 미래 지향적 준비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음
 - :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와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기반시설 재건에 대한 조언 및 지원 중, 에너지 발전기 기부 등 기부와 재정적 보조를 지속할 계획임
- 네덜란드 : 공공건축가가 우크라이나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건축가를 고용하는 등 인도주의적 프로그램도 병행 중, 공간적 재건에 대한 조언과 지원, 일부 재정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음

(3) 국가·도시 정책을 통한 도시 회복력 강화

- OECD 도시정책 작업반 발언 개요

- 회복탄력성을 위한 도시의 틀 마련 필요, G7 논의 결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주요 주제 중 하나
- 장소기반 지원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었으며 G7 간 도시정책에 대한 지식 교류에 집중

- 일본 : 2023년 다카마츠에서 G7 간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포럼 개최 예정, 고령 인구와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임('Reinforcing urban resiliency through national urban policies' 발간 예정 언급)

- 영국 : 보건과 위생, 주거에 대한 도시계획 역사를 고려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함
- 로마니아 : 그린 딜(green deal)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적 도시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도시 교외화 현상, 도시쇠퇴, 주택 부족 등 도시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함
- 미국 : 연방 주택국(HUD)은 G7 논의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주택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참여 중,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 언급함
- 프랑스 : G7의 다층적 거버넌스 강조에 동의, SDGs, 순환경제, 기후행동, 주택문제 등에 관한 G7의 정책 프레임워크가 내년 회의에서 더 논의되었으면 함
- 유럽연합(EU) : 도시 교외화, 토지이용, 대도시권 관리, 농업지역 관리 등 도시정책의 다양한 의제가 있고 방법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UN Habitat : OECD의 'Global Monitoring Report' 매우 유익하고 한국 등 많은 회원국에서 우리를 지원하고 있음
- 캐나다 : 도시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기반시설, 주택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에너지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음

(4) 기후변화의 선두에 있는 도시

- OECD 도시정책 작업반 발언 개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월 회의의 'Scoping systemic cities' climate resiliency' 개요 언급 ■ 일본이 관련 논의의 최신 현황 발언, 'A review on COP27, the role of cities for climate action' |
|--|

- 영국 : 기반시설, 안전 및 방재 관련 녹색기반시설(green infrastructure)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홍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중, 도시지역의 밀도와 주거환경(열 환경 등) 간 상관관계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습한 서쪽 지역과 건조한 동쪽 지역 등 지역 간 기후에 따른 여건 차를 고려한 도시적 대응정책 고민 중임
- 일본 :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발전에 집중하고 있음
- 이스라엘 : 정책 대상의 규모와 방법론 간 상관관계를 더 구체화 필요, 중앙정부는 식재 확충과 계획 방법, 지도화 등을 주도하고 있음
- 미국 : 인플레이션 대응정책(IRA)는 대부분 기후행동에 관한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기금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이 환경국(EPA)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배출량

- 감축기술 발굴에도 집중,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녹색은행(green banks)과 기술적 지원 병행 중이며 공공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 관리 정책도 추진 중임
- 프랑스와 유럽연합(EU) : 지표의 틀과 분석 단위에 한계가 있기에 국가와 도시의 지표 활용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벨기에 : 전문가와 지방정부 간 지식교류(knowledge exchange)가 중요함
 - 터키 : 기후적응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IPCC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기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네덜란드 : 네덜란드 도시는 저탄소 건물 및 근린단위 접근에 집중하고 있고 러시아에 천연가스 수입의존도가 높아 건물 에너지자립 및 효율화가 매우 중요한 정책 의제임(네덜란드의 'Heat Network Challenge' 언급)

(5) 도시-도시 파트너십과 탈중심화된 개발협력을 통한 SDGs 추진

- OECD 도시정책 작업반 발언 개요

■ 도시와 도시(City to City, C2C) 파트너십 평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성과 발언
--

- 영국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관한 연간 보고서 발간하고 있고 지방정부 단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런던은 타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활발, 비도시-도시지역 간 사회간접자본 공유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독일 : 도시와 도시(C2C) 파트너십에 관심이 많음

제5차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와 공공투자(Public Investment) 작업반 회의

1. 회의명

- 제5차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및 공공투자(Public Investment) 작업반 회의

2.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20일(수), 09:30 ~ 17:30 (파리시간); OECD CC2 회의실

3. 참석자

- OECD 지역지표 작업반 일원, 회원국별 대표단 및 사무국 일원

4. 논의 안건

- (1) 지역 차원(subnational)의 탈탄소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 (2) 기후 위기 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 (3) 지역과 도시의 포용적이고 양질의 기반시설 투자
- (4) 혁신정책의 다층적 거버넌스
- (5) 지역 재정 데이터의 미래
- (6) 도시 간 협력 : OECD국을 위한 기회와 도전 (핀란드와 리투아니아 사례 중심)

5. 주요 논의내용

- (1) 지역 차원(subnational)의 탈탄소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 OECD 다층적 거버넌스와 공공투자 작업반 발언 개요

- 지역 및 도시 단위의 기후금융허브(sub-national climate finance hub)와 공식 홈페이지 소개
- 2018년 제시한 지역 금융, 기후 금융, 기후 수입, 녹색예산, 금융 대안 등의 내용 발표

- 영국 : 녹색금융(green financing)은 정부의 지원만으로 부족하며 원칙과 지침을 공유하는 지방과 민간의 참여가 필요, 영국은 다양한 녹색기금을 묶어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 : 국가적으로 녹색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점차 늘리고 있고 건물과 에너지 등 배출원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기후행동을 지원, 프랑스는 과거부터 투자은행이 운영되고 있어 유사 금융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호주 : 중앙정부의 금융정책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있음

- 미국 : 인플레이션 대응정책(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해 관련 기금을 운영 중이며,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이 이미 이뤄지고 있고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로마니아 : 중앙-지방정부 협력의 금융지원정책을 펼치고 있고 에너지 효율화와 기반시설, 모빌리티 개선 등에 이를 투입하고 있음

(2) 기후 위기 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 OECD 다층적 거버넌스와 공공투자 작업반 발원 개요

- 청색 경제(blue economy),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위기관리(risk management)에 관한 다층적 거버넌스와 공공투자 방안 논의 필요성 주지
- 위기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의 틀과 원칙에 대한 논의 제안
- OECD는 과거 10년간 물(水) 거버넌스 프로그램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물(水) 거버넌스와 기후행동을 연계한 정책 발굴에 집중
- OECD는 기후적응과 회복탄력성과 관련한 물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TACAR, nature-based solution 등 언급)
- 정책적 이슈가 밀집한 지역과 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식(local knowledge)가 매우 중요하기에 지역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

- 호주 : 기후 재앙 중 특히 가뭄에 대응한 호주 정부의 정책을 소개함
- 미국 : 호주 상황과 미국은 매우 유사, 좋은 기후정책은 좋은 경제정책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경제적 회복이 기후정책에 포함될 필요, 미국의 재난 관리와 회복 프로그램을 소개함
- 브라질 : 브라질은 도시계획, 기반시설, 물 관리 등을 포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정책추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예방과 회복을 함께 다루고 있음
- 프랑스 : 프랑스도 종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특히 문화적 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한 위기관리 목표를 수립함
- 영국 : 영국도 자연발화 화재 등 재난과 재해가 심각, 지역 회복탄력성 포럼에 커뮤니티 관계 공공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네트워킹을 통해서 상호 정책적 지원 논의 중, 물 관련 정책은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고 공공의 개입은 아직 시작 단계임
- 호주 : 금융과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정책적 패키지를 구비하고 제공하고 있음
- 캐나다 : 2007년 이래로 중앙정부는 재난과 재해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집중, 미국과 유사한 정책 형태를 취하고 있고 재난과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정책에 집중함
-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물 부족이 중요한 정책 의제로 폐수 재활용에 대한 논의 활발함

(3) 지역과 도시의 포용적이고 양질의 기반시설 투자

◦ OECD 다층적 거버넌스와 공공투자 작업반 발언 개요

- G20과 협력하여 양질의 기반시설 투자에 관한 기금 및 금융지원에 관한 정책적 대안 마련 논의 진행
-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와 지역이 OECD의 지원을 받아 지속가능한 양질의 기반시설 정책 추진 중
- G20의 기반시설 작업반(G20 Infrastructure Working Group)소개

◦ 영국 : 지방정부로의 정책적 권한 이양을 언급함

(4) 혁신정책의 다층적 거버넌스

◦ OECD 다층적 거버넌스와 공공투자 작업반 발언 개요

- 장소기반 혁신정책(place-based innovation policy) 소개
- 혁신은 위기 관리를 전제로 하기에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한 개입이 필요
- 혁신정책은 기업과 시장의 규모와 특성에 영향을 받음
- 혁신의 역할에 대한 논의 필요성 언급
- 로마니아의 관련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발표 및 의견 수렴

◦ 영국 : 연구개발(R&D)과 산학 협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 OECD의 다층적 거버넌스와 공공투자 논의는 영국의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산업 클러스터 정책과 유사성이 있음

: 영국의 혁신구역 프로젝트는 주거와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총체적(holistic)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 스웨덴 : 스웨덴은 혁신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이고 정부에 혁신부서가 있으며 민관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

◦ 미국 : 미국은 장소기반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학과 지역조직을 비롯한 공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정책의 추진이 주요 전략, CAREs Act에 근거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과 코로나 회복을 위한 감염병 지원기금을 비롯한 'Build Back Better' 도전을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 : 교통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과 도시정부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

◦ 네덜란드 : 다양한 지역에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 기업가 정신의 역량 강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다부처 간 협력적 정책을 추진 중, 아인트호벤 지역 내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로 다부처 간 수평적, 수직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

◦ 캐나다 : 캐나다는 혁신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위기를 분산하는 자세를 취하여 공동으로 위험을 감수, 협력하고 있음

(5) 지역 재정 데이터의 미래

◦ OECD 다층적 거버넌스와 공공투자 작업반 발언 개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에서 지역 재정 데이터 관련 데이터 기반 구축과 분석력 강화 지속 중
(sng.wofi.org 참조)■ 아시아개발은행과 이달 안에 관련한 보고서 발간 예정 |
|---|

- 유럽연합(EU) : 10년 주기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매우 놀라운 성과임
- 미국 : 미국 통계청에서 관련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고 5년 단위 데이터 갱신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기타 : 대다수 회원국이 OECD의 데이터 기반 구축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의견 개진

제47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1차 회의

1. 회의명

- 제47차 지역개발정책 위원회(RDPC) 1차 회의

2. 일시 및 장소

- 2022년 12월 1일(목), 09:30 ~ 18:00 (파리시간); OECD CC9 회의실

3. 참석자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일원, 회원국별 대표단 및 사무국 일원

4. 논의 안건

- (1) 팬데믹 회복정책 이행과 더불어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수행
- (2) 지역기반 기후 행동 :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정책
- (3) 「The OECD Regional Outlook 2023」관련 토론
- (4) 각 작업반 활동 결과 보고
- (5) RDPC Communication and Impact (closed-door session)

5. 주요 논의내용

- (1) 팬데믹 회복정책 이행과 더불어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수행
 - G20/G7 회원국이 OECD의 'Policy Toolkit'을 공식 채택함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발언 개요

- 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 동향 보고서를 발간, 올해 세계 에너지 동향(World Energy Outlook, IEA)에 의하면 1970년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현재보다 더 전략적이고 구체적이었음
- 향후 2030년, 2050년의 기후/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전략과 구체적 대안이 실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투자가 절실히 그리고 빠르게 이뤄져야 함
- 또한 광물자원의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현재는 천연가스에 집중하고 있으나 타 광물자원의 희소성 또한 향후 에너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청정에너지 전환(clean energy transition)'을 구현해야 함
- 생활비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net zero' 실현은 매우 중요하며, OECD의 지역 지표(territorial indicators, TI)에 의하면 대도시권보다 비대도시권의 에너지 취약성이 더 높으며 비대도시권에 저소득층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은 여건상 불균등 문제 심화가 우려됨

- 영국 : G7 중 가장 높은 소득, 에너지, 생활물가 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북쪽과 서쪽 지역 간 불균형이 특히 심화, 코로나 기간 중 세금 부담도 높아지고 다양한 경제적 위기가 있었으나 잘 견딘 편이고 앞으로는 에너지 위기의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녹색에너지(green energy) 문제는 천연가스 비용 부담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비용에 대한 부담과 비도시지역의 취약성이 시급한 해결과제임
- 네덜란드 : 주거와 가구 중심의 녹색에너지(green energy) 전환과 에너지 소비 절약을 실천하고 있음
- 일본 :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정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냉난방이 가장 큰 부담이고 천연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이 주된 에너지 공급방식으로 이에 대한 대안적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
- 미국 : 다른 나라와 유사한 에너지 위기 여건에 처해 있고 석유 등 화석연료 생산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올 겨울 에너지 소비에 관한 문제가 예상, 불균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초당파적 에너지 비용 지원정책을 마련함
- 독일 : 코로나 회복정책에 이어 에너지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비도시지역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러시아산 석유 수입도 문제임
- 오스트리아 : 에너지 위기와 코로나 회복을 위한 다층적 공공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 캐나다 : 'Build Back Better'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며 과거로 회귀가 아닌 이전 보다 나은 미래를 그리는 것에 집중할 필요, 인종과 성별 등 문화적, 사회적 차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 마련도 이뤄져야 하며 단·장기적 정책에 대한 평가 지표의 실효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헝가리 : 올해 9월부터 에너지 위기로 인한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아직은 이를 평가하기 조금 이른 시기임
- 크로아티아 : 2021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생활물가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지표 전반에 부정적 예측이 이월 것으로 예상됨
- 로마니아 : 지역과 도시 단위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 금융에 관한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고 이에 OECD 데이터와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음
- 유럽연합(EU) :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여파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고 코로나 지원정책은 지속하고 있으며, 소규모 상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단기적, 장기적 정책의 균형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에 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공정 전환(just transition)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뷰도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단·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이 결국 관건이라고 생각함

(2) 지역기반 기후 행동 :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정책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발언 개요

- 녹색에너지와 일자리(green energy & jobs) 데이터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녹색일자리 불균형 양상이 나타남
- 녹색일자리와 관련한 성별, 숙련도, 기술력, 소득 등의 지표에 따른 불균형이 앞으로도 심화할 것으로 예측됨
- 2023년 관련한 보고서를 고시할 계획임
-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산업전환에 관한 보고서도 곧 고시할 계획임
- 산업 부문 관련해서 6월에 한국과 세미나 진행했고 공정전환에 대한 보고서 발간 예정임

- 벨기에 : 국가-지역-도시 단위의 기후 대응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다층적 공공 주체 간 정책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산업 정책의 규제·지원·전환을 위한 패키지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OECD의 관련 보고서 활용 중)
- 유럽연합(EU) : 장소, 산업 등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정책적 접근이 달라질 수 있고 공정한 산업 전환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영국 : 재생에너지 확대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며 이를 위해 녹색금융에 집중하고 있고, 정책 전 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반영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계획의 틀에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계획 분야를 포함, 이와 함께 정책 기금 지원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함
- 미국 :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Inflation Reduction Act, IRA) 일환 기후행동에 관한 정책 지원 중, 기반시설 관련 법률과 브라운필드 재생 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석탄 산업 전환에도 집중하는 등 연방정부 차원의 재정적인 정책 지원에 집중함
- 포르투갈 : 에너지는 공공정책 보다는 시장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OECD의 분석이나 예측과는 포르투갈의 여건을 다름
: 포르투갈은 현재 2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였는데 이는 시장 변화에 따른 결과로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님
- 독일 : 정책 부분과 장소 중심의 정책 모두 추진하고 있으며 장소 중심 정책은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캐나다 : 포르투갈의 시장 영향 발언 상당히 흥미롭고 국가와 지역별 여건(discrepancy)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없이 일어나는 사회의 변화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풀이해야 할지 고려해야 함

(3) 「The OECD Regional Outlook 2023」 관련 토론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발언 개요

- 2023년 발간할 보고서 관련 진행 현황 공유함
- 제47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자료의 해당 보고서 자료 사전 공유한 사항을 바탕으로 회원국별 의견 수렴을 진행함

- 네덜란드 : 오랜 기간 네덜란드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 지속되고 있음
- 폴란드 : 어느 나라나 지역 간 불균등은 존재하며 해법은 각 나라와 지역의 시장과 정책에 영향을 받음
- 프랑스 : 이번 보고서는 명확한 정책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 정부의 예방적 정책 의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고, 미래 세대의 시선을 반영할 필요, 또한 GDP 외의 지표발굴도 이뤄져야 함
 - : 지표발굴은 예를 들어, 연안 지역의 미래 기후변화의 취약성 등을 고려한 탄소예산 및 감축 능력에 관한 지표를 고민할 수 있음
- 이스라엘 : 지역 불균형과 불균등은 공공서비스 배분, 교육 및 일자리 등을 통해 평가될 수 있고 보고서의 해당 내용이 더욱 보강 필요, 이스라엘의 경우 예루살렘에 첨단 기업과 대학이 밀집하여 지역적 교육과 일자리 불균등이 매우 심함
- 포르투갈 : 지역과 도시의 상호 결속력, 연계성을 평가하는 내용이 더 보완되었으면 함
- 영국 : 영국의 ‘Leveling Up the UK’(백서, White Paper) 참고할 수 있음
- 캐나다 : 영국과 OECD의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시장 소득과 불균등 분석 결과와 정책제언에 큰 차이가 없기에 보완이 필요함
- OECD : 비도시지역의 기반시설 개선도 매우 중요한 정책의제이며 도시와 비도시지역을 연계한 정책추진 체계가 필요,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비도시지역과 농업 및 제조업, 비도시지역의 사회적 혁신)를 진행하고 있고 아이슬란드에서 관련 행사 개최함
- OECD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도시의 외연적 확산 방지, 디지털 기술의 활용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임

(4) 각 작업반 활동 결과 보고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발언 개요

-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물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도시와 도시 (City to City, C2C) 파트너십, 지역지표(TI), 다층적 거버넌스 등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작업반 회의내용 요약 전달함
- 9월 개최한 OECD 비도시지역 회의 요약 및 결과 전달, G20, G7, World Urban Forum 등의 타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음

- 캐나다 :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방안과 비교 우위의 접근방식이 필요함
- 콜롬비아 : 스페인어 버전의 보고서도 발간해주길 바라며 OECD의 보고서는 우리 정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음
- 미국 : 실무 주체에 OECD 보고서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고 모범 정책사례의 발굴과 소개 및 공유를 활성화해야 하며 데이터 구축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필요함
- 일본 : G7 국가와 일본이 주최하는 관련 행사 언급함
- 포르투갈 : OECD 프로젝트에 다양한 회원국의 지역과 도시의 이해집단을 참여시켜야 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관련 세미나도 개최하여야 함
- 영국 : 동향에 관한 보고서는 성격상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여건이 있고 더욱 명확한 문제의식이 더 나은 보고서를 만들 수 있기에 더욱 다양한 기관과 주체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를 독려해야 함
- 종합 : 보고서의 보완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질과 분석의 객관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소통이 주요함
 - : OECD 회원국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으나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젊은 층의 최종 거주지는 대도시로, 비도시지역의 디지털 인프라가 열악한 것도 도시-비도시지역 간 격차를 벌리는 큰 원인임

(5) RDPC Communication and Impact (closed-door session)

- 각국 대표단 대표 참여(비공개)

제47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ed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2차 회의

1. 회의명

- 제47차 지역개발정책 위원회(RDPC) 2차 회의

2.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28일(월), 09:30 ~ 15:30 (파리시간); OECD CC9 회의실

3. 참석자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일원, 회원국별 대표단 및 사무국 일원

4. 논의 안건

- (1)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OECD 권고 초안(the 1st Draft of RDP's Recommendation) 검토
- (2) 우크라이나 재건 : 지역과 도시 거버넌스 강화
- (3) RDPC 네트워크 :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를 위한 OECD Champion Mayors · OECD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WGI)의 최근 프로젝트 추진 상황

5. 주요 논의내용

- (1)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OECD 권고 초안(the 1st Draft of RDP's Recommendation) 검토
 - 미국 : OECD 권고 초안의 개념적 틀로 제시한 10가지 요소는 정책적 활용성 측면에서 우수하고, 미국의 산업 클러스터와 지역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북부 지역의 정책사례 역시 참고할 수 있음
 - 프랑스 : 민주주의, 거버넌스, 지방분권(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등은 각기 다른 의미로 이들 개념의 차이를 반영한 초안의 보완이 필요하고, 정책제언 부분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바람
 - 일본 : 일본은 인구감소와 이에 관한 정책적 경험과 사례를 초안에 담았고, 대중교통 연계 등 도시지역 개발에 관한 내용에 관심이 가며 디지털화와 디지털 거버넌스, 스마트도시에 관심이 있음
: 초안의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내용이 더 보강되었으면 하고 일본은 이와 관련한 실제 프로젝트를 OECD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 폴란드 :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보고서의 대상으로 다루는 방향이 향후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공간적 정책추진사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 캐나다 : 기금을 지원하는 대상의 범위가 다소 좁은 것으로 보이며, 기금 지원 대상 범위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가 달라질 것임
: 초안의 상향식(bottom-up), 장소 기반(place-based), 부문별 계획(sectoral planning)이 혼재되어 있어 정리가 필요하며 보고서의 명료성 제고 필요함
- 포르투갈 : 초안의 개념 및 원칙 설정은 매우 우수하고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포용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나, 기능 지역 및 내용(functional areas & contents)은 개념적 정의부터 시작해 독자를 고려한 내용적 보완이 필요함
- 호주 : 다소 이상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로 느껴지며 어떤 주체가 지역개발의 권한과 집행력을 가진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여전히 모호하고, 상향식 정책추진에 관한 비정부 집단의 범위와 역할에 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함
- 영국 : 영국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권한 이양에 집중하고 있고 영국 사례는 상향식 혹은 하향식 정책추진에 관한 지침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보완되어야 함
- 로마니아 :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모로코 : 대도시권, 비도시/도시별 지표 개선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며, 모로코는 현재 도시계획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기에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많이 참고하고 있음
-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비도시/도시로 이분화한 정책 발굴과 추진이 적합한 여건은 아니며, 'Learning by doing' 개념을 추구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개선하고 있음
-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개발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성장 개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인구 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2) 우크라이나 재건 : 지역과 도시 거버넌스 강화

- 우크라이나 공직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 발언 개요

-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계획과 전략, 실행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우크라이나 난민과 도시의 재건을 위해서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SOC)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방 및 국가의 기금운용 전문성과 재건 과정을 이끌어 갈 거버넌스가 중요한 요소임
- 우크라이나와 주변 국가는 전쟁 이전부터 국가적 재건(reform)에 관한 입법과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 그 과정에서 OECD의 보고서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건을 위한 재정적 지원임

- 미국 :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며 인도주의적 지원도 함께 제공할 것이고, 이를 위한 미연방 내무부 등이 입법을 진행하고 의회 승인을 받음
: 우크라이나의 기반시설 재건 등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정책을 제공할 것이며 미국의 성공적인 회복(recovery)정책 사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음
- 영국 : 영국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하였고 전쟁 난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영국의 지방정부 간 협력 사례로 맨체스터와 오데사가 재건을 지원하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러한 peer-to-peer 형태로 우크라이나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캐나다 : 캐나다도 우크라이나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OECD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함
- 이탈리아 : 이탈리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사회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고 오데사 등 지방정부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 OECD : 도시와 도시(City to City, C2C)의 정책적 지원방식을 통해 회원국의 도시와 우크라이나의 도시 간 협력을 통한 재건과 공공행정 및 역량 강화를 이어갈 것임

(3) RDPC 네트워크 :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를 위한 OECD Champion Mayors와 OECD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WGI)의 최근 프로젝트 추진 상황

- OECD Champion Mayors와 OECD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WGI) 발언 개요

- OECD Champion Mayors와 OECD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WGI)는 하천과 해양 등 수(水)자원을 자원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적 대상으로 확장하고자 함
- 지역 위기관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광역적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인구 감소는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의 도시 집중은 더욱 심화할 것이며 이에 따른 포용적 성장이 현실화되어야 함
- 도시와 도시(C2C) 정책적 지원방식을 통해서 도시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도시의 다양한 정책 발굴이 필요함
-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등 주요 정책 의제의 논의에 있어 도시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함

- 프랑스 : 프랑스는 물 관련 정책과 입법이 비교적 발달되었고, 물로 인한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는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OECD : OECD는 다양한 정책 의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하고 있고 상호 소통을 통해 업무를 추진,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WGI)는 오래된 부서 중 하나로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추진을 논의하고 있음

회의장 사진



4. 기타사항

□ OECD와 연구 협력 필요시 국토교통부 파견 주체, OECD 내 한인 네트워크 활용 고려